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8. 4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##### ○ 英, 18세 미만 테러관련 범죄자 역대 최대

- 8.3 영국 경찰은 테러관련 범죄로 체포된 5명 중 1명은 18세 미만으로 온라인 이용 시간이 더 많은 10대들이 소셜미디어 등에 만연한 극단주의에 동화되어 현실 세계에 증오심을 표출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
- ※ 英 경찰은 18세미만 테러관련 범죄자가 '19년 4% 미만에서 '22년 20%로 증가했으며 10대 초반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부언

#### 아·태평양

##### ○ 테러 등 허위신고 증가 추세에 처벌강화 필요 지적

- 7.30 경찰청은 '17~'20년 감소세이던 허위신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('21년 4,153건 → '22년 4,253건)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, 전문가들은 적극적 법리 검토를 통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
- ※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률은 90%대로 높은 편이나 대부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이 가벼운 편이며 형사 입건 비중은 25% 수준

##### ○ UN 안보리, 인도 잠무·카슈미르 지역 알카에다 확산 경고

- 7.30 언론은 UN 안보리 보고서를 인용, 알카에다가 인도 지역에서 별도 세력(AQIS)을 형성하고 IS 호라산 지부 및 TTP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잠무·카슈미르 등 인근 지역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

##### ○ 韓,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등 '테러 대응역량 강화' 지속 추진

- 7.31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, △핵심시설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△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등 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
- ※ 총리는 최근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에 대해 대테러체계가 적시에 가동되어, 테러 혐의점 여부를 신속·정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

## ○ ISIS, 파키스탄 정치집회서 자살 폭탄 테러 자행

- 8.1 언론은 파키스탄 카이버팍툰콰주 바자우르\*에서 열린 정치집회에서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54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, ISIS가 성명을 통해 同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
\* 同 지역은 무장세력 파키스탄 탈레반(TTP)의 거점으로, ISIS는 이 지역에서 탈레반은 물론 알카에다와도 勢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부언

## 중 동

## ○ UAE,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자금세탁 전담 검찰청 설립

- 7.31 언론은 UAE 정부가 '20년 이후 금융 범죄자 899명 중 43명이 돈세탁에 연루되어 있고, 그 중 10명이 테러리스트이거나 테러자금을 지원한 바 있어 경제범죄 전담 연방 검찰청 설립 예정이라고 보도

※ 당국은 '23. 1분기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범죄자에게 벌금 3,130만 달러 부과

## 아프리카

## ○ 니제르 군사 쿠데타 관련, 국제사회 규탄 및 우려 표명

- 7.26 서아프리카 니제르 군부 일각이 쿠데타로 現 대통령을 축출하자 국제사회는 이를 일제히 규탄하였으며, 니제르를 거점으로 사헬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억제하려는 美·프랑스 등의 계획에 차질 우려

※ 니제르는 '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이후 5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으며, 지난 '20.12월 최초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現 대통령 선출

## ○ 서아프리카, 정세 불안정으로 '23년 상반기 테러 급증

- 7.31 서아프리카 15개국 경제 공동체 회장 「오마르 투레이」는 UN 안보리에서 지역 내 정세 불안으로 인해 “23년 상반기 1,800건 이상의 테러가 발생해 약 4,600명이 사망했다”고 발표

※ 서아프리카 내 국가별 사망자 수는 부르키나파소가 2,725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, 말리 844명, 알제리 77명, 나이지리아 70명 등

이스라엘, 히브리 대학 內 민간인 겨냥 폭탄테러

- '02.7.31 이스라엘 예루살렘 소재 히브리 대학의 구내식당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, 9명이 사망하고 약 100명이 부상
  - ※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同테러로 “한국 유학생 3명이 다쳤다”고 발표
  - 테러범은 혼잡한 점심시간대를 노리고 폭발물을 은닉한 가방을 구내식당 안으로 옮겨 놓은 후, 원격으로 폭발
  - 同 테러 이후, 히브리 대학은 폭발물 탐지 인력·장비를 상시배치 하였으며, 통행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·검색도 강화
- 이스라엘은 同 테러에 대해 ‘끔찍하고 비열한 행위’라는 성명과 함께, “궁극적인 책임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있다”며 비난
  - 이에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“테러 공격을 절대적으로 규탄하지만, 이번 테러의 발생 원인은 급진적인 이스라엘 정책 때문”이라고 비난
- 한편, 테러배후를 자처한 하마스는 “이스라엘의 암살 작전에 대한 보복이며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유사 공격을 이어갈 것”이라고 선언

< 하마스(HAMAS) >

- (결성) 이집트 ‘무슬림 형제단’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‘인티파다’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 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(핵심인물) 이스마일 하니예(최고 지도자, 62년생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內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등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 軍·민 대상 폭탄테러·총격·로켓공격·납치
- (주요테러)
  - '08.12~'09.1 이스라엘軍과 하마스간 ‘가자전쟁’ 발발, 800여명 사망
  - '19.5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와 연계하여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700여발을 발사(사망 4명, 부상 80여명)

